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즉각 깨닫는 열식 제3권

# CONTENTS

## 차례

---

### 도움말

영적 스승이자 예술 디자인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사랑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을 뜻하며, '아름답다'의 뜻을 가진 '포모사'는 그 섬나라와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랑의 길을 걷다.....	3
	머리말 .....	7
1장	관음법문 수행의 이로움 .....	13
2장	업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	49
3장	모든 수행법이 관음법문이다 .....	81
4장	선행과 보시로는 해탈할 수 없다 .....	109
5장	불상에 절하는 것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135
6장	부처는 무상정등정각이 아니다.....	163
7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1).....	203
8장	무상정등정각의 힘은 큰스승에게 있다(2).....	225
9장	생사해탈을 위해서는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한다.....	255
	관음법문 입문과 5계 .....	287
	간행물 안내 .....	291
	주요 연락처 .....	292

# 1장

## 관음법문 수행의 이로움

1987. 3. 7. 포모사 타이베이 무량광 명상센터

모든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석가모니불은 49년 동안 법을 펼치면서 언제나 해탈법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바로 관음법문을 찬탄하기 위해서였지요. 어제 한 수행자가 나를 찾아와 『법화경』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동수同修(동료수행자)들은 내가 『법화경』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법화경』에는 관음법문과 내면의 소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서 『법화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쉽게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석가모니불은 관음법문을 『법화경』에서는 ‘법화법法華法’, ‘연화법蓮華法’이라고 했고, 『금강경』에서는 ‘금강법金剛法’, 『아미타경』에서는 ‘정토법淨土法’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이렇듯 말할 때마다 관음법문을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법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생의 근기나 수행 등급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법문이라 해도 때에 따라 다른 이름을 써서 중생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평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인쇄물을 나눠 드릴 테니 번거롭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흘 동안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알았으면 했던 주된 요지는 관음법문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나는 날마다 이곳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내가 한가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왜 관음법문만이 최고의 법문이고, 다른 법문들은 궁극적인 해탈법문이 아닌지를 제대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관음법문을 찬탄하고 소개하며 광고만 했을 뿐이라서 여러분은 아직도 관음법문이 어떤 법문인지 모를 겁니다. 그렇지요?

나는 정작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제자들이 이 법문을 얻을 수 있지요. 이렇게 법을 전할 때는 말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도 영원히 이 법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고대의 대선사들도 모두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하기 때문에 경전이 필요없다(教外別傳 不用經典).”라고 했습니다. 경전으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경전은 후세들에게 옛 수행자는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깨달은 후에는 무슨 말을 했으며 무엇을 보았는지를 비

교 연구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의 역할이지요. 경전으로는 법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서유기』에는 현장법사가 경전을 구하기 위해 겪었던, 중국 대륙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구도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어떻게 마장의 괴롭힘을 받았는지, 또한 그의 제자 손오공이 어떻게 그를 도와 요괴를 물리치고 경전을 얻게 되었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전은 현장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유기』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책으로 읽는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전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현장법사가 겪은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손오공의 신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저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 조금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부처는 『능엄경』·『법화경』·『금강경』 등에서 관음법문에 대해 거듭 찬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음법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엄경』을 통해 관음법문이 최고의 법문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수행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모두들 추측만 할 뿐이지요.

예컨대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듣는 것이 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음법문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비주를 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시비를 관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을 먹어도 육을 먹지 않은 것처럼 시비是非가 없다고

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심內心을 관하는 것이지 소리를 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음법문은 자비심을 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여기에 앉아 내 앞은 무엇이고 뒤는 무엇이며 오른쪽은 친구들과 친지들이고 왼쪽은 낯선 사람들이라고 관상觀想하면서 마땅히 그들 모두에게 고귀한 이상과 자비로운 생각을 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즐겁고 평안하기를 축복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관음법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전을 보고 진정으로 그 뜻을 깊이 이해한다면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추측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며 범부의 머리로 상상해 낸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등급에 이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자비심을 관상觀想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범부의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의 자비심은 언어를 초월한 것이어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행할 필요도 없이 두뇌만을 사용해서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겠지요.

대비주를 수십만 번 외워서 천수천안千手千眼이 될 수 있다면 포모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관세음보살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대비주를 수십만 번씩 외웁니다. 티베트 사람들도 아주 고생스럽게 외우며 어울락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외웁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세음보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비주를 그렇게 열

심히 외우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고 자비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의 탐진치貪瞋癡는 여전히 큼니다. 경전을 외우면 외울수록 그들의 에고는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나’는 수행을 한다, ‘나’는 채식을 한다, ‘나’는 염불하고 예불한다, ‘나’는 자비심을 낸다, ‘나’는 어떠한어떠하다는 등 모두 ‘나’이며, ‘나’라는 것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으며 새로운 법문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두뇌 속은 온통 ‘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을 담을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참된 법문을 알지 못하면 수행하기도 어렵고 쉽게 ‘에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는 그나마 겸손한 마음이 있던 사람도 수행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겨 버리지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경전을 독송하면 복이 있는지 없는지, 독송하는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달마대사는 “좋은 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대중 웃음) 나는 여러분과 다투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전을 독송하길 좋아한다면 왜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것과 신 것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둘 다 먹을 수 있으며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전을 독송한다는데 왜 말리겠어요? 좋아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경

전을 독송하는 것은 사람들을 욕하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해도 되며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전을 독송한다고 해서 복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런 복은 인천人天의 복에 불과하지요. 경전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독송만 해도 쓸모가 있다고 한다면 녹음기도 성불할 수 있을 겁니다. (대중 웃음) 녹음기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녹음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읽으니까요. 우리는 읽으면서 즐기기도 하는데 (대중 웃음) 녹음기는 틀리게 읽는 법도 없으며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읽든지 불상에 절만 하면 수행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고 외우고 보는 것이 모두 경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직은 경전의 참 뜻을 모른다 해도 감히 그런 교만한 태도는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경을 보고 외운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적어도 경전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보며 옛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 수 있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 서서히 수행하려는 마음을 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전을 독송하면 복이 있더라는 말을 듣고 오로지 그 복이 탐나서 많은 경전을 독송한다면, 경전을 독송할수록 ‘나’는 복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으며 만져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에게 복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에고’가 크게 자라서 굉장히 교만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능엄경』에는 다른 법문에 대해서도 모두 씌어 있습니다. 어떤 법문이든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만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법문을 신뢰한다면 다소간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외워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몰두해서 자신의 이름을 외면 삼매에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몰두’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잠시 아미타불을 외우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에게 일주일 휴가를 주어 쉬게 하고 대신 자신의 이름을 외워 보십시오. (대중 웃음) 그렇게 해도 복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아미타불을 외우면 자신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복이 더 많습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Amitabha인데 그 소리가 우주의 진동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 발음과 우주의 진동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면의 우주 진동을 들어 보지 못했으니 ‘몰두’해서 부처의 명호를 외우다 보면 범천梵天의 진동을 듣게 되어 얼마간 도움도 될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콩을 가지고 아미타불을 외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염불을 한 번 할 때마다 콩을 한 알씩 옮기는데 염불이 끝나면 그 콩을 모두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서로 인연을 맺었지요. 이것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당시 날마다 아미타불을 외우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염불을 다 하고 난 뒤엔 콩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새 콩을 사야 했지만 그 할머니는 새 콩을 살 돈이 없어

서 쓰던 콩을 가지고 계속 염불을 했습니다. 염불을 한 번 하고 콩을 한 알 옮기고 해서 다 없어지면 다시 외면서 한 알씩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았지요. 이렇게 염불을 계속하자 얼마 후에는 손으로 옮기지 않아도 콩이 저절로 튀어서 옮겨갔습니다. 할머니가 염불을 할 때마다 콩이 한 알씩 저절로 옮겨간 것이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아미타불을 외웠으면서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미타법문이 아니면 수행할 법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미타불을 좋아하는 포모사 사람들이 정토淨土법문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지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날마다 아미타불을 외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 할머니의 염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감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응은 어디서 오는 거지요? 왜 다른 사람은 감응이 없을까요? 이 넓은 중국에서 그렇게 몰두해서 염불하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대한 중국 대륙에 그런 염력을 가진 사람이 왜 오직 한 사람뿐일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염력이 없을까요?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지혜안이 열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다른 중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중생, 작은 중생, 고차원의 중생, 심지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왔다갔다하면서 때로

는 여러분에게 음식이 다 끓었다고 알려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는 그들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중생들은 우리가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우리와 놀아 주려 하고 우리 일을 돕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귀엽고 어떤 것은 고약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려 하진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들은 혼령이 아니라 자연에서 화생(化生)되어 나온 ‘원소(元素, Element)’입니다. 자연화생으로 생겨 나온 중생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채소에도 이런 중생(Element: 원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갖가지 자연화생으로 생겨 나온 중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생명에는 네 종류의 형태, 즉 태생(胎生)·난생(卵生)·화생(化生)·습생(濕生)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일찍이 2,500년 전에 우리가 일생 동안 보지 못하는 다른 중생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지혜안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꿰뚫어 봤지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연에서 화생한 그런 작은 중생들 가운데 어떤 것은 비교적 선량하여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주 못되고 장난기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들과 함께 놀거나 도와주는 중생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싸움을 부추기는 것을 좋아하는 중생들도 있지요. 이것은 재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그들의 본성 때문

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얘기하는 곳으로 그런 조그만 중생들이 몰려와서 우리 주위를 에워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밝은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보살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빛이 항상 좋은 빛만은 아니지요. 그런 빛은 긍정적인 빛이 아니라 부정적인 빛으로서 어둠에 속하는 빛입니다. 그런 작은 중생들에게도 빛이 있기 때문에 지혜안이 열리지 않으면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은 두 종류의 빛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밝음의 빛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빛이지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있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어둠의 빛이란 좋지 않은 힘을 뜻합니다. 어떤 곳은 그런 중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향을 사르고 소원을 빌 때 그들이 와서 향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우리에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보살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장난치고 노는 것일 뿐이며, 이런 현상은 아주 흔하지요.

이러테면 아무 일 없이 길을 잘 가다가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모두 그런 중생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사고가 난 곳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곤 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곳을 ‘귀신 붙은 곳’이라고 하며 그곳을 지날 때는 누구든 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두 차례 차 사고가 난 곳에는 그런 중생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흥분되고 비참한 분위기나 혼란스

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방해를 하지요. 그러면 차에 문제가 생겨 멈추거나 돌발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한쪽에 서서 좋아합니다.

심사가 잘 틀어지는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냅니다. 어제 자장(磁場)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좋은 자장(Magnetic Field)이건 나쁜 자장이건 모두 우리 자신이 만듭니다. 우리가 좋거나 나쁜 원소를 끌어당겨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특별히 다른 상황도 있긴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재앙이 비교적 적으며 병에 걸리는 일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최고의 힘이 함께하니까요. 이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내가 소리가 무엇인지 말했지요. 그 소리가 바로 창조의 힘입니다. 이 소리를 『능엄경』에서는 ‘음류(音流)’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말씀(the Word)’이라고 했습니다. 불보살은 그 음류에 의지해서 내려와 중생을 제도하고, 그 음류에 의지해서 올라갑니다(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음류’이고 ‘도’이며 노자가 말한 ‘이름할 수 없는 이름(名不可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할 수 없는 이름’이나 ‘음류’와 서로 통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주는 다른 힘은 없고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서 아주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대한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대한 단체에는 본래 큰 힘이 있습니다. 혼자 힘은 보잘것없지만 이 거대한 자유의 단체, 거대한 힘과 같이 있게 되면 다른 좋지 않은 것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흑과 백,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힘과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은 힘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들의 단체를 벗어났으며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엔 마귀나 염라대왕이라 해도 관음법문 수행자에게는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장’이 변해서 예전과 달리 좋은 것만 흡수하고 나쁜 것은 흡수하지 않으니까요. ‘음류’가 우리의 좋지 않은 자장을 씻어내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자장만 남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우리의 자장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좋고 어떤 곳은 좋지 않았습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는 좋은 것들을, 좋지 않은 곳으로는 좋지 않은 것들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의 ‘음류’, 이 창조의 힘, 근원의 힘으로 자장을 수리하여 좋지 않은 부분들을 모두 씻어 버렸습니다. 마치 수술을 해서 병든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꿰맨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병이 없어져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과 같지요.

관음법문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음의 거대한 힘으로 영양 부족인 우리의 힘을 수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재난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진정으로 열심히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수행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드물지요. 우리는 한 번만 그 힘과 통하게 되면 영원히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힘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주 작은 힘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다고 해도 정작 우리가 깨어서 유산을 보관해 둔 은행이나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돈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는 않겠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재산이 많다는 걸 벌써 알고 있으니깐요. 다만 그 재산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두 우리 자신의 뜻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재산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의 생활은 당연히 좀더 풍요해질 겁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갖가지 산해진미를 맛볼 수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깨어서 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면 예전과 별 차이 없이 적은 살림으로 궁핍하게 살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친지나 친구, 이웃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입문해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스승에게 법을 전수받고 그 거대한 힘과 연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주의 가장 큰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성장할 시간은 필요합니다. 입문을 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진정한 인간의 품성이 계발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반쪽 인간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의 운명이나 생활, 그리고 성격의 변화가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하루나 이틀 또

는 일주일만 지나도 수행의 이로움과 관음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생활과 성격이 변하고 지혜가 계발되어 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이것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변화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달려나가 말을 할 테니까요. 관음법문은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법문이라고 말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모두 표준 중국어를 알아들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같이 생긴 이 조그마한 섬 포모사만 해도 언어가 두세 종류나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지요. 만일 모든 사람이 '관음'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소리만 있다면 모든 중생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부처는 한 가지 소리, 한 가지 언어로 말하지만 중생은 제각기 다른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소리, 내면의 이 아름다운 음악은 전화 시스템처럼 장거리 전화 교환대를 통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가오슝·타이난 같은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개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지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가 있는 곳을 즉시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2분 내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경찰이나 이웃, 또는 친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도움을 청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  
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고 병  
이 나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플 때 전화만 한 통 하면 곧바로 의사가 달려오  
든지 앰블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 가고, 택시까지지도 집앞에 와서  
사람을 싣고 갑니다. 아주 편리하지요.

관음의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이 소리, 내면의 이 음악은 하나의  
시스템이나 한 줄의 전선과 같이 모든 중생을 한데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중생들과 서로 통  
하게 되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지요.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중생들을 알게 됩니다. 이  
를테면 우리가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친구를 알  
고 있다는 표시이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는 뜻이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다 그런 내면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류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중생들을 다 이해하  
게 됩니다. 새나 개미, 심지어는 더 미세한 중생들까지도 모두 이해  
하게 되지요.

미국에서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든지도 알 수 있고, 프랑스에  
서 누가 우리를 그리워하는지도 즉시 알 수 있으며, 화신을 나투어  
그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의 수행이 높으면 그가 화신으  
로 우리를 보러 올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통  
화하는 최첨단 화상전화 시스템이나 텔레비전의 원리와의 같은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관음의 시스템은 전화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효  
과적이어서 돈이나 전선이 필요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누구와 연  
락하려 하고 누구를 보러 가려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  
든 비행기표를 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발  
짝도 걸을 필요가 없고 한마디의 말도 필요없으며 한치의 생각도 필  
요없지요. 이 시스템은 가장 빠르고 간단하며 자동적이어서 관음법  
문을 수행한 다음에는 위로는 불보살과 통하고 아래로는 삼도고<sup>三</sup>  
途<sup>途</sup>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보사중은上報四重恩. 하제삼도고下濟  
三途<sup>苦</sup>(위로는 네 가지 중한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고를 제도한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관음법문을 수행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힘과 서로 통하기 전에는 중생을 제도한  
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고, 또 내일  
어디로 갈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모두가 표준 중국어를 압니다. 적어도 99퍼센트  
는 알아들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알아들을 것이며, 여러분의 본성이나 불성이 알아들을 테니  
까요. 사실 여러분은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는 눈만 바라봐도 충분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들도  
그런 식으로 서로 통하는데 나라고 왜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통하지  
못하겠어요? 내일은 두 시간 동안 내 눈만 바라보다 가십시오.

정말입니다. 수행이 높은 사람은 특별히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를 보고 싶어서, 안 보면 마치 무엇을 잃어버린 듯 그리워서 나를 보러 오는 것이지요. 우리 둘은 서로 한참 동안 눈을 바라보고 나서 그는 떠나고 나는 다시 가서 명상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문은 ‘조용한’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깐요. 법을 전할 때도 말을 하지 않지요. 선칠禪七(7일 동안 함께 모여 명상하는 것)을 할 때는 더욱 말을 하지 않으며, 스승을 보러 가도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한 법문이라 해도 되겠지요? 물론 여러분은 ‘관음’을 해야 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조용합니다. 소리를 관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모르지요. 이웃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와 함께 사는 남편이나 부인, 자녀들도 모릅니다. 이 소리, 이 경지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도 알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를 그러한 심경心境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불교 신자라서 광친 노스님에게 귀의하여 범명을 받고 날마다 광친 노스님의 사진에 절을 하거나 불상에 절을 하고 염불을 한다고 합시다. 어떤 천주교인은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며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불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버스 안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공원이나 화장실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요.

얼마 동안 수행을 하고 나면 일부러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 내면의 음류와 함께 있게 되고, 내면의 음류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충직하고 가장 도움이 되며 가장 이기심이 없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줄 것이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즉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쓰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도 선禪, 밥을 먹어도 선, 잠을 자도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행주좌와行住坐臥 가운데 선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등급에 이르기 전에는 선이란 이리저리해야 한다면 서 ‘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너무 많은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수행이 높고 생활이 곧 선인 사람이 그렇게 논쟁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우습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지요.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지혜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법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관음법문에 대해 좀더 소개하지요. 물론 이것은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전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음법문을 얻으려면 내가 침묵할 때라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관음법문을 다 배운 걸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관음법문은 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데 합쳐져야 관음법문이 됩니다.